

'20.11.12일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 두 말 씀

2020. 11. 1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오늘 디지털금융협의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직면한 최고의 현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들보다 먼저 대비해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방역과 위기 대응에서

글로벌 모범이 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혁신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것입니다.

금융산업도 어느 때보다 혁신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각계 전문가분들이 모여 금융산업 혁신의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협의체인

디지털금융협의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창의적 제언과

따끔한 충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I.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이번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고민이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은행, 카드, 보험, 금투 등
전 금융업권의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들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됩니다.

EU,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은행권 내의 계좌정보 위주로
서비스 범위가 한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해외의 정보 전송요구권 유사 제도 도입

- (EU) 은행 등에 대해 계좌정보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해 관련 계좌정보를 안전한 형태로 제공할 의무 부여(「Payment Service Directive」 2)
- (영국) 정보주체가 Data controller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Data Protection Act」 2018)
 - 이를 기반으로 은행 보유 정보를 개방하여 Open-Banking 서비스 실시
- (일본) 전자결제등대행업자가 정보주체인 예금자의 위탁을 받아 은행계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은행법」)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단순히 은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넘어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 유일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35개의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최초로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라는 새로운 Player 출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❶ 먼저, 금융회사 등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소비자가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인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 소비자들이 내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관리하고 정정·삭제할 수 있게 되는 등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❷ 또한,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도 강화될 것입니다.

- 대형 금융회사의 정보독점 현상이 완화되어
금융회사들이 ‘기득권’ 보다는 ‘소비자 효용’을 기반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 EU 은행의 68%는 본인계좌정보관리업 도입시 기존 은행들의
시장영향력 유지에 위협요인이라고 응답('16년, PwC)

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 등장 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공급될 것입니다.

* 미국 상위 5개 마이데이터 업체 고용인원 : 약 1.3만명('17년 기준)

Ⅲ.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

그러나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데이터 제공범위에서부터 표준API 구축, 전송요구권 행사 방식, 마이데이터 사업자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융위는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논의를 3가지 원칙에 기반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① 첫째,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동·보관·활용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기업이 영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원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영위를 위한 주된 목적이 영리목적 데이터 수집 또는 금융상품 판매·권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 위치에서 소비자를 위해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육성될 것입니다.

② 둘째, 데이터가 안전하면서도 확장성있게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동·보관·활용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정보유출 우려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요구권 행사 방식을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해킹이나 위변조 우려가 없도록
데이터의 이동·보관·활용 전 과정에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및 비금융권,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표준 API* 등 데이터 망을 갖추게 된 만큼

*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안전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일종의 통로(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마이데이터를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이종산업간 융합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협력적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 데이터 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감독당국,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업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부터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 신용정보 보유기관,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원한다면
알고하는 동의 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협력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여러분.

19세기 산업혁명의 발원지였던 영국이
부분적 기계혁명을 넘어
세계의 공장으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방직·방직분야, 제철업 등 제반 공업의 기술혁신과 함께
철도망 구축이라는 철도혁명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도혁명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철강과 석탄을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공급하여
산업혁명의 온기를 전세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같이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철도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지니는
데이터 산업으로 성장하면서도

금융 등 관련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모든 혁명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생각은 시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 랠프 왈도 에머슨

마이데이터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우리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